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

- 발굴대상 :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과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서구청 위기가정지원팀(☎560-5080)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동 주민센터	연락처
검암경서동	☎560-3011	석남3동	☎560-3166
연희동	☎560-3026	가좌1동	☎560-3186
청라1동	☎560-3444	가좌2동	☎560-3305
청라2동	☎560-3290	가좌3동	☎560-3324
가정1동	☎560-3042	가좌4동	☎560-3387
가정2동	☎560-3067	검단1동	☎560-3265
가정3동	☎560-3084	검단2동	☎560-3468
신현원창동	☎560-3114	검단3동	☎560-3485
석남1동	☎560-3126	검단4동	☎560-3352
석남2동	☎560-3143	검단5동	☎560-3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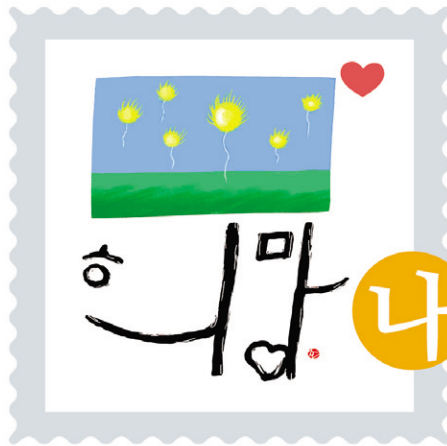


서구청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3층 희망복지과
전화 : 032)560-5080, 팩스 : 032)560-2742



일곱 번째 이야기
2016.3 Vol.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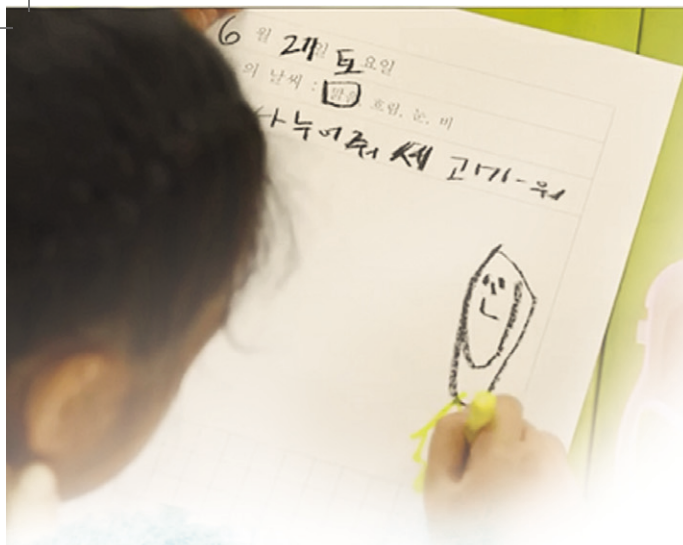


나눔이 있어 살만한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희망복지지원단





일상에서 나누는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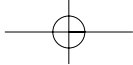
휠체어로 등·하교를 하는 장애우를 돕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만남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아름다운 마음을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서로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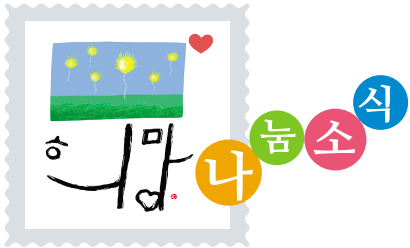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

어두운 곳에서 힘겨워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로 뛰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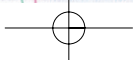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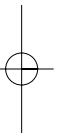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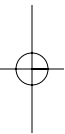


일곱번째이야기
2016.3 Vol.7



Contents

- 희망복지지원단 소개..... 4
- 희망복지지원단 현황..... 5
- 희망복지 활동이야기..... 6
- 우리동 인적안전망 12
- 동 인적안전망이 전해 준 희망 15
- 착한나눔 착한이야기 16
- SOS 위기가정사례 17
- 희망전하기..... 19
- 희망담은 감사편지 21
- 언론에 비춰진 희망복지 23



희망복지지원단을 소개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

Panel 1: 추운 겨울, 80세 김선동 할아버지는 보일러가 돌아오지 않는 우허가 주택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고. (In the cold winter, 80-year-old Mr. Kim Seon-dong was shivering in the Uhega housing complex because the boiler wasn't working.)

Panel 2: 그러나 하나 있던 전기장판까지 고장이 나서 동사위험에 처해있던 걸 동장님이 발견하여 주민센터에 알렸습니다. (However, the only electric mat he had also broke, putting him in danger of freezing. The neighborhood leader discovered this and reported it to the community center.)

Panel 3: 주민센터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할아버지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The community center reported Mr. Kim's situation to the Hope Welfare Support Team.)

Panel 4: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으로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점점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Mr. Kim was a lonely elderly person whose vision was getting worse, making it difficult for him to go outside.)

Panel 5: 10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자녀들과 사이도 나빠져서 거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Ever since his wife passed away 10 years ago, he hasn't had much contact with his children.)

Panel 6: 첫째 아들은 1년에 한번은 아버지를 찾아오지만 중풍에 걸린 부인을 돌보느라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His eldest son visits once a year, but he's so busy caring for his stroke-stricken wife that he can't spend much time with his father.)

Panel 7: 동맹पाल은 30년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막내아들은 집을 나간지 10년이 되어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Dongmaepal hasn't been in contact for 30 years, and the youngest son has been gone for 10 years, so no one knows where he is.)

Panel 8: 눈이 좋지 못한 할아버지는 장안청소도 거의 못해 집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한 상태였으며 약취도 심했습니다. (Mr. Kim's eyesight was so poor that he couldn't even clean his house, and it was full of trash. He was also quite frail.)

Panel 9: 게다가 할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도 좋지 못했고, 시급히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Moreover, Mr. Kim couldn't eat properly, his health was poor, and he needed help urgently.)

Panel 10: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김선동 할아버지를 신속히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The Hope Welfare Support Team quickly selected Mr. Kim as a case management target.)

Panel 11: 그러나 할아버지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However, Mr. Kim had very little will to live.)

Panel 12: 어렵게 연락이 된 동맹पाल의 동의를 얻어 할아버지를 입원시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After getting Mr. Dongmaepal's consent, they admitted Mr. Kim to the hospital for an examination.)

Panel 13: 검진결과 할아버지는 뇌내장기였으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안구적출을 해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The examination results showed Mr. Kim had an intracranial tumor. If he didn't have surgery, he would need eye removal. This surgery was supported by the Korea Eye Foundation.)

Panel 14: 또한 할아버지가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기관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Additionally, various organizations provided help so Mr. Kim could spend winter in a warm and clean home.)

Panel 1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왔고, (They helped Mr. Kim apply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urance so he could have a basic standard of living.)

Panel 16: 건강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에게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도록 지원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hey supported Mr. Kim in getting a long-term care assessment so he could use home care services.)

Panel 17: 이제는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지내는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Now, Mr. Kim feels happy living at home, talking to the home care workers.)

Panel 18: 약 드세요~ 이렇게 자주 찾아와 줘서 고마워~ (Take your medicine~ Thank you so much for visiting so often~)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에 처한 가구에 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번없이 129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지원현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처리건수		
	총계	사례관리대상 선정	서비스연계대상 선정
157건	157건	145건	12건

서비스연계 실적

총계	사례관리	민간서비스연계	공동모금회
23,069건	3,432건	17,942건	1,695건

동 인적안전망 현황

총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복지위원
908명	257명	609명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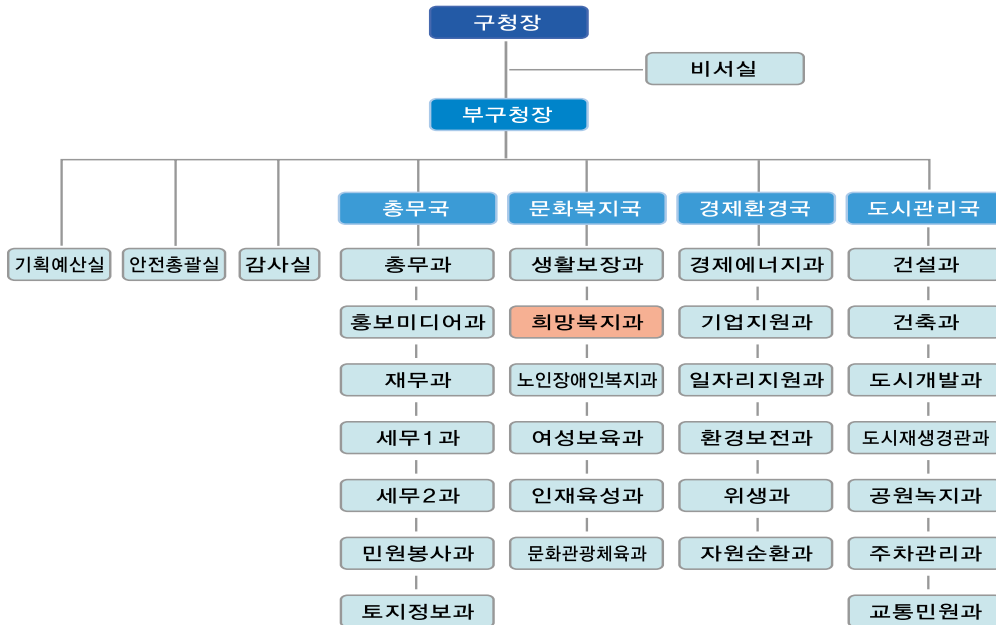
정기후원 현황

후원기관	물품명	수량	시기	후원기간
화엄정사	밀반찬 3종	매회 10개	매주 수	2013~
쭈꾸미일당백	백미	10kg10포	매월 첫주 월	2013~
콩두리	두부	매회15모	매월1.3주 월	2013~
민들레지역복지	현금 또는 현물	저소득가구	수시	2013~
꼬꼬닭갈비	돈 또는 계육	매회20개	매월 둘째주	2014~
바पुर이(심곡점)	매 저녁식	매일 2식	매일	2015~
(주)우리기업	현금	월167만원	매월	2015~
새롬주거복지센터	집수리	일부	수시	2015~
(주)청명푸드	밀반찬 3종	4kg 3종	매월 15일	2015~
(주)한우야한우야	백미	4kg 20포	매월 15일	2015~
인천희망복지회	밀반찬 3종	매회22개	매주 화	2015~
삼산간치과	치과치료	치료비 연계	수시	2015~
(주)핸즈코퍼레이션	생필품	6가구	매월마지막주	2013~15



주민이 행복한 서구 만들기! 희망복지과 신설

2015년 3월 9일 인구 50만 돌파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희망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구 희망복지지원단은 희망복지과를 주축으로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

2015년 7월~11월까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가정의 효율적인 문제해결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도모하고자 사례관리담당 직원 등 19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자 슈퍼비전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형 서비스기관 협력회의

지역내 방문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토대로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기관 협력회의'를 연4회(4월, 6월, 8월, 10월) 개최하여 각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보건소 방문간호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위기가정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제공 등 업무 협조를 위한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하여 서구청애인복지관,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인천서구교육지원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함께 위기가구의 서비스 연계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담당자 특별교육**

2015년 3월 25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22명이 모여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는 내 주변부터 살피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서구 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담당 힐링 워크숍

2015년 4월 7일, 1박 2일 동안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대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춘천의 KT&G 상상마당에서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속에서 예술 체험의 시간을 가지며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였습니다.





찾아주세요! 복지사각지대 적극홍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

- ♥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알려주세요
- ♥ **아래와 같은 지역주민들을 찾아주세요.**
- 정고, 공천,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베란다하우스, 교각 아래,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지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 학대·방임·유기 등의 위험이 있는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 ♥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희망복지과, 동주민센터**로 알려 주시 바랍니다.

문의 :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560-5082~9)
각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인천광역시 서구
www.seo.incheon.kr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자체 포스터와 리플릿 총 5,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종교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500여 개소에 부착·배부하며 적극 홍보하였습

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향후에도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은 지역주민들을 찾아주세요!

- 비정형 거주자**
- 정고, 공천,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베란다하우스, 교각 아래,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
-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 학대·방임·유기 등의 위험이 있는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노출된 대상자**
- 학대·방임·유기 등에 노출된 아동·노인 및 학대·방임 위험이 있는 장애인, 아동 등
-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 피해자 등

문의처 | **입거율 만 129** |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 | 각 동주민센터
www.in.gov.kr | ☎323560-5082-9

인천광역시 서구
www.seo.incheon.kr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관내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6월 중 관내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인천국제성모병원,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발굴 및 지원** **업무 협약서**

우리 서구 관내의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 발굴과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계층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협력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구청”과 “협력기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가 있는 거주지에 “발굴조사대상 가구”와 원주민의 정보를 “서구청”과 “협력기관”이 공유하여 관내 저소득층 발굴에 적극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참여기관) “서구청”과 “협력기관”은 이 협약이 체결되는 바에 따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력기관”은 관할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위기지원지원에 적극 지원한다.
2. “협력기관”은 주민구애에 대해 조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서구청”은 “협력기관”에게 의뢰 받은 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구청”과 “협력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 5년유출방지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종료) 본 협약서의 승낙은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본 협약의 중지를 위하여 일방적 해지를 요청하여 서명(당년)후 24시간 내 보낸다.

2015. 6.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쁨의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파지수거 판매자 일제 조사

인천 서구는 2015년 5월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 앞장서기 위해 동 복지 위원과 함께 파지수거 판매자 183 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계가 곤란하신 107명을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신청 및 민간후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어르신! 무거운 어깨 의 짐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희망복지지원단이 함께 할게요.”



세균제로! 『사례관리대상가정 소독 및 해충방제』사업 실시



2015년 8월, 10일간 위생관리 취약계층인 사례관리 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소독 및 해충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흙크린닥터」에서 1일 5세대씩 방문하여 해충방제, 주방 기름때제거, 화장실 살균소독, 유해냄새제거 작업을 시행하였고 정기적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에서 노약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제공 및 사용법을 교육하여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 서포터즈』의 작은 날개짓

위기가정 사례관리 서포터즈는 사회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골드세대 퇴직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7월, 9월부터 참여하였으며 서구청 희망복지 지원단과 연계하여 자살 및 고독사 위험, 건강 문제 등의 위기에 놓인 분들을 매주 4일 방문하여 말벗 및 건강상태 살피기, 병원 동행, 산책 동행 등의 정서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석구석 발굴하자” 복지위원 교육

2015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복지위원 42명에 대해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따른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일명 송파세모녀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여 일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든든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소개합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통장, 복지위원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 각시대 발굴 및 사례관리, 자원개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복지통장

관할 통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위기 가구를 발견하거나 발굴 하면 동 주민센터로 연계합니다.

복지위원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 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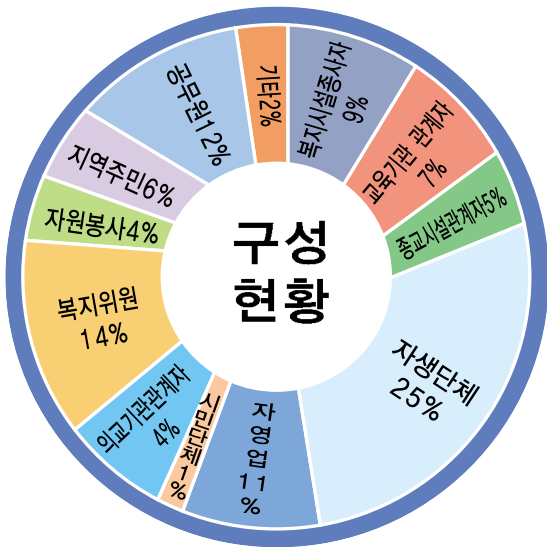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자격은?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③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⑥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⑦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서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인원(명)
총계	257
복지시설종사자	23
교육기관관계자	18
종교시설관계자	13
자생단체	63
자영업	29
시민단체	3
의료기관관계자	9
복지위원	36
자원봉사	11
지역주민	15
공무원	31
기타	6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주요사례



1.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5년 11월 20일 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 위원 2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3개월 이상 장기 후원하는 지역 협력기관에 수여하는 『희망나눔이웃』인증패를 각 동 협의체별로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정식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가좌1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가좌1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고동락』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30여 세대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후 보일러 및 창호를 교체해주는 주거개선사업, 난방용품지원, 연탄지원 등 총 600만원 규모의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하여 훈훈한 기운을 나누었습니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 나눔 업무 협약식 개최

서구는 2015년 12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건호 회장 및 20개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후원 및 연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사회복지사업 협력 및 지역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 확대는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나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인적안전망이 전해준 희망



“이웃의 관심이 희망의 촛불을 밝혀주었어요”

“악취가 너무 심해요” 2015년 5월 12일 검단동 복지통장은 경제적·환경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고 동주민센터에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검단동 주민센터, 검단동 통장자율회, 서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및 검단지구대, 클린업 입주청소 전문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사 활동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관계로 집안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세대는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치우지 못했던 낡은 침대와 소파, 헌 옷, 애건의 분변 등을 처리하였고 냉장고 청소를 통해 오래된 음식물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장판 및 도배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통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상기 세대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청소 후의 모습

“복지통장님!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연희동 복지통장은 복역 중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어려움을 알고 동 사례관리담당에 연계하였습니다. 위기사유를 확인한 동주민센터는 한샘 어린이집의 후원을 받아 쌀과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돕고, 오래되어 벗겨지고 찢겨진 부분들이 많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집수리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착한 나눔 착한 이야기

어느 눈먼 소녀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연을 날리니?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서...?”
 그 말에 소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연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연이 나는 하늘 위로 끌어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맛 볼수 있거든요.”



▶ 위기가정지원팀은 사례관리가구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곳에 「희망나눔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희망나눔이웃은 누구일까요?



희망나눔이웃1호 화암정사



희망나눔이웃2호 푸꾸미일당백(원당동)



희망나눔이웃3호 콩두래김임경서동



희망나눔이웃4호 민들레지역복지



희망나눔이웃5호 꼬꼬닭갈비(심곡동)



희망나눔이웃6호 바푸리 심곡점



희망나눔이웃7호 우리기업



희망나눔이웃8호 새롬주거복지센터



희망나눔이웃9호 반찬단지(청명부드)



희망나눔이웃10호 한우야



희망나눔이웃11호 인천희망복지회



희망나눔이웃12호 삼산진치과

따뜻한 희망쪽지를 보냅니다!

» 희망쪽지 사연
 꿈을 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안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으나
 어느 날 찾아온 병마에 그동안 일궈 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꿈에 남은건 엄청난 병원비와 당장 월세가 밀려 퇴원해서 갈곳도 없는 신세.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 답장을 기다립니다(후원인내)
 나눔을 함께 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청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
 ☎032-560-5082

“Be Ambitious! You can do it.”

통합사례관리사 김성영

“선생님, 아빠가 미쳤어요.”
 땅이 꺼지는 듯 토해내며 말하는 아이의 지친 목소리가 수화기 저 너머로 들려왔다. 아이의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간 그 집을 보고 위기가정지원팀은 그냥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썩은 냄새는 온 집안을 휘감고, 천정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으며, 바퀴벌레들은 마치 제 집인 양 여기저기로 떼 지어 달리고 있었다. 1년간의 사례관리를 통해 아버지는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에서 멋진 새 삶을 살겠다며 웃으며 종결을 했었는데... 잘 살 것이라는 아버지의 다짐은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허황된 약속이었을까?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다고 한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한다. ‘조금만 참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는 일을 하실 것이고, 나랑 같이 웃으며 게임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은 하루하루 늘어나고, 결국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보이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아버지에게 그만 하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자신도 살기 위해 맞대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아이의 위기가정지원팀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아빠를 영원히 입원시켜주시던가 아니면 날 보육원에 입소를 시켜 주시던가, 더 이상은 못살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죽일 것 같아요.’

위기가정지원팀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무작정 지원을 할 수도 없었다. 주거지 개선을 한다 해도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야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위기가정지원팀의 조건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최소한 2달 입원하시는 거야,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니?’

아이의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소식을 3주 후에 전했고, 위기가정지원팀은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

위기가정지원팀은 아버지의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식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부식, 푸드 마켓 연계, 핸드코퍼레이션 등 후원 물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잘

SOS 위기가정사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음식 만드는 방법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기술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또한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인 화장실 수리에만 그치지 않고 해충 퇴치와 곰팡이 냄새 제거를 위한 전문 소독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아이가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책꽂이, 옷장 등 공부방을 만들어주었다. 아이는 위기가정지원팀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웃음을 찾았으며, 스스로 '이런 것은 어때요.'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심리학자가 되어야겠어요. 그럴려면 공부해야겠죠. 대학 가려고요. 하하'

'그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너의 세상이야,
"Be Ambitious !, You can do it." 아자아자 파이팅!!'





통합사례관리사 최미순

“삶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시작”

박00님은 65세 노인이 되기까지 수없이 각박하고 무심한 세월을 이기고 이 고시텔에 오기 전까지 30여년 간을 노숙생활을 하거나 부랑인 시설에서 보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20세까지 서울 돈암동 이발소에서 이발 기술을 배워 일을 하였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이발소에서 면도사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청바지 제조 공장에서 13년간을 일하며 화목하게 살았지만 청바지 공장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친구에게 사기 당하고 그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이 생겨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나가라는 말에 힘없이 쫓겨나 보라매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수개월하고 은평마에 입소하여, 그곳 자립장에서 제과제빵기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3년이 넘는 세월을 은평마에서 보냈습니다.

그 후 이 곳 저 곳을 헤메이다 은혜의집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렇게 희망도 없이 지내던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이 싫어져 은혜의 집을 나왔습니다. 높고 병들었지만 그렇게 삶의 끝을 시설에서 마감하고 싶지는 않아 자립장에서 모아 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그렇게 이 고시텔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시설에서 퇴소 후 주소 이전 관계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수급이 중지된 것을 알고 그제서야 전입신고를 하고 수급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그 사이에 도움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여 사례관리 개입을 하였습니다.

사례관리 개입 이후 긴급생계비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긴급생계비 지원비로 밀린 고시텔 비도 내고, 적은 돈이지만 월2만원씩 청약저축도 가입하였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임대주택도 신청하여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계획합니다.

방문 시 간장과 참치통조림을 넣어 만든 반찬에 물을 말아 드시고 계셨는데 10월인데도 상온에 방치되어 하얗게 곰이 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침 밀반찬을 후원해주시는 단체가 있어서 반찬을 가져다 드렸더니 “참 맛있다”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고시텔에서 밥은 제공해 주지만 쌀도 갖다드렸더니 식사 때마다 해서 먹으니 참 좋다고 하시고, 시설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옷이 얇아 민들레지역복지관에서 겨울바지를 후원해 주셔서 드렸더니 참 좋아 하셨습니다. 바지 한 벌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 사례관리 사업비로 방한 외투와 바지, 내복을 지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5년 전 지하철역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잘 걷지 못하고 외출 시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하신다고 하셔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즘 박00은 매일 시설에서 주는 음식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십니다. “두부도 찌개에 그냥 넣어 먹는 것보다 기름에 부쳐서 먹으니 고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시작을 하시는 박00을 응원합니다.

“5살 고은이가 기다리는 봄”



통합사례관리사 설광희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 그러나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모녀가 있습니다. 태아 때 뇌실 확장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진단과 발달장애로 모든 활동시 보호가 필요한 올해로 5살이 된 고은이는 또 다른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간질 질환인 희귀질환으로 하루 3번 이상발작이 있을 때 마다 약 처방 이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싸우고 있는 고은이와 엄마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

오늘도 꿈꿔봅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걸을 수 있길,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기를... 임신 7개월, 세상과 온전히 만나기도 전 뱃속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천성 뇌병변장애’와 ‘웨스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고은이는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뛰어놀 나이에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산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 *웨스트증후군 : 영아연축이라고도 불리며 소아 간질 중 2%를 차지하는 질환임. 희귀질환이지만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질병.

지속적인 재활치료, 지금 고은이와 엄마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합니다. 고은이가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게 된다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혼자 몸을 가누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홀로 고은이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의료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고은이와 엄마는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닌 하루 하루를 그저 버텨냅니다.

고은이와 엄마의 소망을 지켜주고자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은 재활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지도 서지도 못하고 뒤집기만 하던 고은이는 발 보조기에 의지해 걸음을 뚝 수 있게 되었고 발작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고은이 걸을 지켜야하는 엄마는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어 각종 공과금 연체가 되는 등 생계가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긴급생계비 및 긴급난방비 지원 등 총 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고은이를 아기 때부터 진료해주던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도움으로 MRI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재활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양육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주 5회 1시간의 방문수업으로 신체발달 및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부식), 푸드마켓, 대한적십자, 한국가스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의 후원물품과 사랑으로 엄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이후에도 밀알재단에서 1년간 재활치료비 지원과 생계비 후원을 받아 전달할 예정으로 꾸준한 사회적 관심은 이어질 것입니다. 엄마는 사례관리를 통해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희망을 얻게 되었다며 매우 깊이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본인이 봉사자로 활동 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위기가정지원팀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아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러 출발하겠습니다!



희망담은 감사편지

“뿌리고 가신 향기는

영원히 잊지 못할꺼예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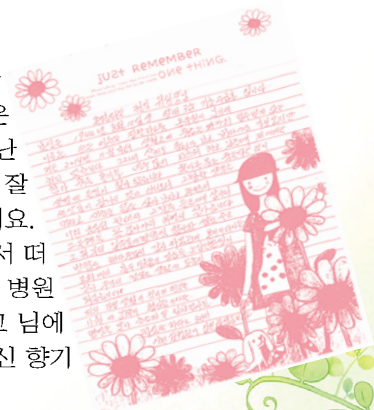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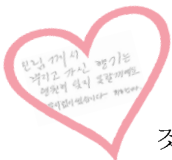
지옥을 헤매고 있는 저희를 돌봐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 쓸 줄 모르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76세로 82세인 할아버지, 출가한 딸과 아들이 식구입니다. 아들도 자영업으로 할아버지는 외항선원으로 오래 근무하시어 노후를 즐기며 기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모르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저 행복했어요. 한 오년전 아들의 발위에 음료수병이 떨어져 조금 불편할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기에 그냥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심해 장정이 소리 내어 울 정도로 참는다는 개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리지 않고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 병의 이름은 CRPS 약도 없고 낫지도 않고 원인도 모르고 그저 계속 아프답니다. 약이라곤 몰핀(마약류)으로 겨우 2시간 정도만 통증을 달랠 뿐입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니 남는 건 빛과 모든 걱정 이였습니다. 아들은 지치고 저희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순탄치는 않았습니. 1층집이라 햇빛 구경도 못하는 날에는 전기를 켜야 되고 급기야 노부부의 정신도 희미해 졌습니. 할아버지는 날이 어두워 집에 가자는데도 무서워 했어요. 보건소 치매센터를 찾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 치료중이었는데 옆친데 뒤흔다고 이사한지 20일만에 새벽 3시에 각혈을 하시고 무서워 119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혈이 너무 많으니 준비하고 자녀를 부르라는데 아픈 아들이 오겠습니까? 연락이 끊긴 딸이 오겠습니까? 그사이 동사무소 복지담당 선생님께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한숨을 쉬더니 십만원을 주시며 병원에서 필요한 준비물에 쓰라고 주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저 바보가 됐지요. 서구청 희망복지과 위기가정지원팀 선생님이 오시더니 쌀과 반찬, 생활용품을 주시고 노인복지과 선생님은 점심을 주시면서 탄 생각하지 말라며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늘 웃으며 손잡아 주시는 강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쓸줄 모르는 글 읽어주신 청장님 고맙습니.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는 말 든든한 청장님이 계시니 좋은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앞날 전진하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달받아 2016년도에도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부 인사드립니다.

후텁지근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제 발을 스쳐 갑니다. 님께서도 느끼시겠지요. 저는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낀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난 인생이 즐거웠기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 조금 더 잘해보려 했는데 조금 더 실패하지 않으려 했는데 젊은 날의 고생만이 아쉽네요. 지금 제가 저의 뉘트리를 늘어놓으려 쓰는 글은 아니니 열려 놓으세요. 님께서 떠나신단 말에 섭섭함과 밀려오는 추억이 예상됩니다. 님과 함께 제가 아파서 병원을 뛰어다니던 생각이 나네요. 이리저리 뛰어 다니시며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님에게 받은 정과 마음은 영원히 우리 가족에게 각인 될 것입니다. 님! 뿌리고 가신 향기는 영원히 잊지 못할꺼예요.



언론에 비취진 희망복지



인천 서구 복지 이상“無”

경기신문 2015년 12월 04일 금요일 007면 지역

서구 희망복지지원단 전국 지자체중 '최우수'

보건복지부 선정 8일 시상식

인천시 서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일 정부 세종청사내 컨벤션센터에서 수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구는 10월초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 고사

이같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구 사례관리의 뛰어난 성과와 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 위기에 놓인 가구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한 사례들이 이번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



나눔이웃 화엄정사 보광스님 사회봉사부문 구민상 수상

선경일보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006면 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민들레지역복지 설립 10주년 행사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2005년 5월 1일 당시 겸양동 성당의 정귀호 신부님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민들레지역복지는 후원금(품)을 통하여 매달 130여 세대에 일천만원 상당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말반찬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외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웃음과 희망이 민들레 흩날려 퍼져리 파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일 민들레지역복지(대표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모시고 연회동 성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 서구 복지소외계층에게 도움이 소기운 전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006면 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민들레지역복지 설립 10주년 행사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2005년 5월 1일 당시 겸양동 성당의 정귀호 신부님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민들레지역복지는 후원금(품)을 통하여 매달 130여 세대에 일천만원 상당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말반찬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외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웃음과 희망이 민들레 흩날려 퍼져리 파지도록 하고 있다.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006면 지역



나눔이웃 민들레지역복지 설립10주년기념 유공자표창

경기신문 2015년 08월 28일 금요일 007면 지역

 효행상 이승숙	 교육 김형백	 사회봉사 고재건	 사회봉사 소순홍	 사회봉사 양승서
 황경천정동	 문화예술 정문섭	 체육진흥 박종필	 체육진흥 주재남	 지역경제 황해석

서구를 빛낸 '구민상' 수상자 10명 확정

지역사회 발전·구민화합기여 내달 5일 기념행사에서 시상식

인천시 서구는 오는 9월 21일 '제27회

전반에 현지심사와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부문은 효행상(74·4명), 교육(57명), 문화예술(57명), 체육진흥(57명), 지역경제(57명), 사회봉사에 고재건(66)·소순홍(65)·양승석(69)

경인중앙일보 2015년 12월 09일 수요일 013면 인천

서구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서비스」 이상 無

2015년 우수지자체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서구는 민선6기 동안 추진해오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함께 만드는 내일」을 실현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따뜻한 복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살맛나는 서구」 건설을 위해 복지서비스 가능·통합·운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구청 홈페이지 내 사회복지분야 콘텐츠들을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복지정보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

서구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현 사회복지 전달체계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 위해 기존 별도로 운영했던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관리 시스템을 광역별(연희동과자역, 석남지역, 가좌지역, 검단지역)로 통합 조사·관리를 개편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관리를 일원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구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퇴구대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201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 우수상 수상」, 「맞춤형급여 우수 지자체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관내 복지시설 프로그램 전수조사 및 시설별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개방, 자원봉사자연계, 향소년시설 내 성인프로그램 운영 등 통해 공유서비스를 2015년 7월부터 실시해 9월 1차 추진실적 확인 결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에서 757회 6,603명이 복지시설 통합 서비스들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민들의 복지요구 다양화에 발맞춰 직정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이 미약함에 따라, 서구 홈페이지 '사회복지 콘텐츠'를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카테고리별 분류로 복지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시설 정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서구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비해 복지시설 프로그램이 부족한점과 복지서비스 분산으로 민원의 서비스 제공 만족도와 직원의 업무 효율화 저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역시 든든하고 편안한 복지서구를 위한 구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향남 기자 jhongnam@s.com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희망의 전화 129**



○ 긴급지원제도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위기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등)

◇ 지원기준(사후조사)은 어떤가요?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29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 110만원(4인기준)
- 의료급여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주거급여 : 60만원(대도시, 4인기준)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기타급여 : 동절기 연료비(9만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